신(神) 쇼핑의 역사는 이미 오래다

(여호수아 16:1~10)

5.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벧호론에 이르고
6.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7.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8.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9.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10.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神) 쇼핑의 역사는 이미 오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신(神) 쇼핑의 역사는 이미 오래다'
'신을 쇼핑한다.'라는 듣기에도 민망한 행위의 역사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의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우연하게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신을 쇼핑한다.'입니다. 현재 영국인들의 모습을 담은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 신에 접근방식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신을 쇼핑한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전부 기독교인이었던 영국 사람들이 더 이상 특정 종교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종교를 절대적인 의미에서 붙잡고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종교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시장에서 물건을 쇼핑하듯이 원하는 종교와 신을 골라잡는다는 의미에서 신을 쇼핑한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종교나 신이 절대적이고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물건을 쓰다가 지겹고 낡으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했다가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한 명의 위대한 인간적 스승이라는 생각을 지나서 샤먼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샤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속의 영적 매개체로서 무당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데 영국 내에서 구원은 인간 스스로가 쟁취해야 하는 것이지, 도대체 누가 요즘 세상에 2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예수가 가져다주는 구원을 얻는다고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은 유럽 사람들이 태어날 때에 유아 세례를 받는데, 기존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모태신앙이었는데 요새는 유아세례를 취소하는 탈 세례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무슬림 사원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강단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으면 평등법에 어긋나므로 고발을 당하고, 또한 기독교적 가르침을 말하면 그 선생님은 강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제과점 주인이 동성애적인 글귀를 쓴 케이크를 만들어달라는 동성애자들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고발을 당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입양한 부모가 아이에게 자신의 신념대로 기독교를 가르치고 기독교인이 되게 했는데, 이 사실이 동네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입양아 자체를 당국에서 뺏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를 기를 자격이 없다는 것인데 참 이상합니다. 이슬람교도들은 완전히 오픈 된 상태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기독교를 전해도 안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종교를 필요 없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불교나 이슬람 같은 타 종교들은 성황입니다. 불교적인 명상법과 수행 등은 활기찹니다. 반대로 어느 동네의 교회를 찍었는데 머리 하얀 노인만 열댓 명 모여 있습니다. 기자가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노인들만 남고 젊은 사람들은 다 사라졌느냐?'라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나도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지만 아직 모르겠다. 당신이 내게 한 질문은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했답니다. 모르면서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약 선민의 그룹, 조직으로서의 교회에서 이렇게 신을 쇼핑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3400년 전에 예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을 쇼핑하는 기독교의 타락과 선민들의 타락은 이미 성경에서 엄청날 정도로 성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타락을 염려하고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40년간 목회를 한 동네 교회 목사님이 왜 교회가 약화되었는지에 대해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동성끼리 사랑하는 것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염려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동성애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게 되고, 사람들이 신을 쇼핑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예수나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혐오감을 느끼고 기독교를 전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혐오를 느끼는 상황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교회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뒤늦게 깨달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쇼핑하는 시대가 되었고, 동성애가 교회에서조차도 합법화 되었습니까? 미국 교회, 캐나다 교회, 영국 교회, 스페인에서도 그렇고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프랑스나 독일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간의 사랑도 하나님보다 먼저가 된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동성애만 죄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눅14: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성애를 열렬하게 반대하는 보수진영에 속한 교회들의 문제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부자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괜찮은 줄로 알고, 가족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압니다. 나라 걱정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먼저가 된다면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이성간의 사랑도 죄악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죄악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성애를 문제시하느라고 마음의 시선이 동성애에 집중되어 있고, 아직까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뿐 십자가 생활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뺏겨지는 이 상황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하나님 사랑이 가능해지는데 아직도 모릅니다. 동성애가 교회 안으로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보다 이성이나 하나님보다 가족을 하나님보다 부모와 형제자매를 사랑한 죄악에 대한 징계입니다. 부모사랑, 자식사랑,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것이 최고의 부모사랑 자식사랑 형제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이 되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가느라고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고 그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삼촌들의 항렬에 올라서게 됩니다. 레위 지파까지 13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분배가 없이 성전 종사자가 되기 때문에 12지파가 됩니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쳐서 요셉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동생인데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바짝 뒤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었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 야곱의 손자입니다. 그 손자뻘에 해당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차자인 에브라임이 다른 모든 앞선 항렬을 제치고, 유다 지파 바로 다음에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여기에 성경의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강렬하게 대비시키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선민의 역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가 합해져서 남 왕국 유다를 이루고, 시간이 지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주동이 되어서 북 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데 에브라임이 열 지파의 주도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대비시키면서 앞으로 선민들의 신앙이 옳고 그르게 갈라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유다 지파도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우상숭배로 퇴폐하고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만, 유다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신앙세계에서의 두 갈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지어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에브라임'의 이름 뜻은 "열매 풍성한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받게 되는 땅은 가나안 중부 지방의 구릉지대로 이루어진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해줄 때에도 에브라임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땅을 갖게 될 것을 예언하였는데 이 둘의 이름의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유다는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과 만족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유다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반면에 에브라임은 '열매 풍성한 땅'이라는 의미로 이 땅의 풍성함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열매 풍성한 땅으로 쫙 갈라지는데, 이것을 대비시키시려고 유다 지파에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지파를 비교하는데 비교의 포인트가 되는 지점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동이 되어서 유다로부터 나라를 찢어, 초대 북 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단과 벧엘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의 경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과, 단과 벧엘의 금송아지와 강하게 대비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왕상12:28~30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 하나는 벧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라고 합니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바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죄악 같이 여겨지지만 지금도 교회 내에서 이러한 일이 자행되고 있고, 이러한 일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을 쇼핑한다.'는 말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동성애 같은 것들을 합법화하는데 동조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고, 기독

교인들로 이루어졌었던 영국 전체에서 예수님이 무당으로 취급받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유다지파의 갈렙과 옷니엘이 보여준 선봉신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에 대해 마음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에게 갖고 계신 생각을 갈렙과 옷니엘에게 넣어주시는 대로 아낙 자손에 대해서 행동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낙 자손에게 먼저 마음을 두는 대상으로 취해버리므로 아낙 자손에게 붙어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시킨 신을 금송아지'라고 말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본성상 마음의 기쁨과 만족할 수 있는 곳을 향해 움직이는데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마음이 기쁨을 향해 움직이고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출애굽의 신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이 '불만스러운 상태에 있는 너희들을 기쁨과 만족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은 에브라임의 이름이 가리키는 것처럼 열매가 풍성한 땅인데 이 세상에서 정한 가치입니다. 눈에 보이는 귀중한 것들이 우리를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불만족으로부터 출애굽 시켜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권력이고 그것이 승진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외모이며 일류대학 졸업장입니다. 이 세상 것들이 금송아지가 되어서 우리를 출애굽 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신을 쇼핑하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의 영향 아래에서 생래적으로 십자가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생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끌려가고 싶어 하고, 끌릴 뿐만 아니라 끌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마치 담배를 끊은 사람들이 담배 냄새만 맡아도 지긋지긋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래적인 타락의 영향으로 세상의 것에 끌리게 되는 상황을 한탄하는데 이게 선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끌리는 자체를 좋아하면서 땅에서 풍성하기를 바라고 땅에서 정해놓은 가치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위협은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세속주의도 아닙니다. 동성애가 합법적이라고 인정하는 교회내의 옹호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조국이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지만 그 상태를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로마 정부에 대해 압력을 가하시지 않고 독립 운동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몸소 길을 내셨고 교회는 이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탄압할

때에도 교회는 오직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00년이 지난 후에 결국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은 상황이 거꾸로 되어서 기독교 국가 전체가 신을 쇼핑하는 국가들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 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시위를 하고, 박 원순 시장은 아시아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첫 번째 시가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외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동성애끼리의 사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성간의 사랑도 하나님보다 먼저라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라 사랑도 하나님보다 먼저라면 죄악이라는 것을 교회가 깨달아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싶다면 가정을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십자가 생활화를 주장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힘 있게 반대하는 자들의 입에서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라도 철저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이 죄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깨달아짐으로서 십자가를 생활화하겠다는 운동이 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